

세계인권도시포럼, DJ센터에서 개최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총 2000여명 참여해

광주시, 국내외 협력단체 · 46개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오는 30일부터 10월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 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주최하며 국내

외 인권도시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 총 2000여명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미경 KOICA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표의 특사인 페

기 히스, 라울발렌베리 인권연구소장,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쟈머 시장, 터키 이즈미르 시장, 튀니지 아리아나 시장 등이 함께 한다.

올해는 포럼 협력기관이 확대돼 국내 24개, 해외 12개 기관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전체회의, 주제회의, 네트워킹 회의, 특별회의, 인권교육회의, 특별행사, 부대행사, 연계행사 등 총 9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포럼의 정책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제안에 사업비를 지원해 시민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윤복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매년 행사규모와 위상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포럼이 세계적인 인권도시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추억의 총장축제 개최준비 착착

대한민국 최대의 도심 길거리 문화예술축제인 '제16회 추억의 총장축제' 개막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개최를 위한 축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총장축제는 '추억, 세대공감!'을 주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충장로·금남로·예술의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 콘셉트는 청바지, 추억의 영화, 아시아, 프로그램 전반에 추억을 상징하는 콘텐츠를 담아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고, 뉴트로 시대에 부합하는 6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을 준비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구, 서구민 행복1번가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 서구가 오는 20일까지 "2019년 서구민 행복 1번가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공무원이 자유로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해 제안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 공모분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분야로 재정수입 증대방안 또는 행정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제안, 기타 구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이다.

남구, 마을-학교 잇는 교육공동체 움직임 활발

광주 남구 관내에서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교육 공동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활동 중인 마을 교육 공동체는 주월1동 옹정마을 사람들과 푸른길 달빛 마을학교를 비롯해 봉선1동 꿈꾸는 부엉이 안심마을, 대촌동 씨밀레, 방월2동 뽕뽕다리 마을공동체 다락, 주월2동 빛고를 남구마을 허브사이트, 노대동 책문화공간 북, 월산동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동 등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동체는 마을에 소재한 각각의 학교와 연계해 문화예술 활동을 비롯해 진로 지원, 인권 교육, 마을 탐방, 학부모 교육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며 마을 안에 배움과 돌봄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구, 오는 4일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광주 북구가 오는 4일 전남대학교 컨벤션을 일원에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좋은 일자리 다 있습니다! 2019 광주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 우수 인력을 연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GIST, 오이솔루션, 유포토닉스 등 4차산업 선도 기업, 기관과 광주은행, 문화실험 등 금융기업, Y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까지 총 26개의 지역 강소기업을 초청해 현장면접 채용관이 운영된다.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한 뒤 희망하는 구인기업과 1대 1 현장면접과 2차 심층면접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광산구 평동, 행복·활력충전 노래교실 성황

매주 수요일 11시 광주 광산구 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전동선)의 '행복충전 활력충전 노래교실'이, 입소문을 타고 성황을 이루고 있다.

농촌동 주민의 여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노래교실은, 전문강사가 수강생에게 노래·울동을 가르치고, 참여 주민들은 서로 행복과 활력을 나누며 소통하는 장. 7일 동 주민자치위 위원 등 주민 20여명의 참여로 문을 연 노래교실은, 횃수를 거둬하며 수강생이 늘더니, 개강 4주째인 28일 주민 50여명이 강의장을 찾은 정도로 붐비고 있다.

임형택 기자

안기성 광주시 사무관,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표창

친환경차 전용번호판 도입 ·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기여

광주시 자동차산업과 안기성 사무관이 불합리한 법령 개선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안 사무관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 간

차별이 어려워 주차료 등 감면 제의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동호인들과 간담회 추진,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7년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전

용번호판을 부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큰몫을 했다.

2017년 11월17일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통해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법 개정 타당성 등을 설득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됐던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를 허용하는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2018년 5월8일 개정됐다.

안 사무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선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말했다.

청와대서 온 풍산개 '별이' 우치동물원에서 새 삶

북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자견, 흠서 분양받아

광주시에 청와대로부터 지난 8월30일 풍산개 자견(암컷) 한 마리를 분양받아 우치동물원에서 키우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지난해 9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온 풍산개 '곰이'가 같은 해 11월 자견 6마리를 출산하자 청와대가 전국 지자체에 분양 계획을 밝혔고 이에 광주시가 분양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우치동물원에서 새 삶을 갖게 된 풍산개의 이름은 '별이'로 자견 6마리 중 몸집은 가장 작지만 장난기도 많고 활발하며, 특히 공놀이를 좋아한다고 한다.

별이 외에 나머지 다섯 마리의 풍산개 자견들도 서울, 인천, 대전의 동물원에 각각 보급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우치동물원은 기존 풍산개 수놈(10세), 암놈(7세) 2마리를 보



유하고 있다.

윤병철 우치동물원관리사무소장은 "'별이'에 대한 간단한 건강 체크 등을 거친 뒤 동물원 내 보급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선 보일 예정이다"며 "남북 평화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존재이니만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광주플라, 2019년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광주플라'가 올해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재)광주비엔날레가 공동 추진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 '광주플라'가 UN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등 4개 기관에서 공동 주관하는 '2019년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해 건축 문화예술 프로젝트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 지역, 사업 등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으로, 본상 수상은 지난 2015년 광주 푸른길공원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플라리는 지난 6월 국내 심사에서 호평을 받으며 통과한 후 7월 국제심사 서류를 제출해 ▲지역 환경과의 공존 ▲지속성 ▲지역 문화와 역사의 존중 ▲예술성 ▲지역의 발전 공헌 등 평가기준에 따라 8월20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최종 심사에서 본상 수상이 결정됐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2019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준비하고, 지난 2011년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태동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플라 I·II·III 등 30개 작품의 취지와 성과, 민선7기에 추진중인 광주 상정 조형물인 관문형 플라(광주플라IV)를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